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길잡이 나왔다

### 농촌진흥청, 소규모 농사업장 대상 안내문·표준 교안 배포... 현장 안전관리 강화

농촌진흥청은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문과 농업 경영주 대상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49명 미만의 소규모 농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궁금증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내

문에는 법 적용 대상 여부를 비롯해 일용직 및 외국인 근로자 포함 범위, 농장주의 의무, 중대산업재해 기준, 사고 발생 시 처벌 여부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특히 농장주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반드시 점검해야 할 6대 핵심 항목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방침 게시 △작업

별 위험요인 점검 및 안전수칙 안내 △위험요인 관리 및 보호장비 지급 △비상 대응체계 마련 △외부 작업 시 사전 위험요인 설명 △법정 의무 이행 여부 점검 등이다.

표준 교안은 농촌진흥청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제작했으며, 농업 분야 산업재해 현황과 근로자 보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주요 사고 사례 등을 포함해 교육 활용도를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안내문을 농업인 단체 등에 배포해 안전 인식 제고에 활용하고, 표준 교안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 교육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자료는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법적 적용 사례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오상근 기자

## 과수화상병, 적기 약제 살포로 예방

### 농촌진흥청, 비 전후·전정 작업 시 2회 살포 권장

농촌진흥청은 사과와 배 꽃이 진 뒤 새순이 자라는 시기에도 과수화상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약제 살포 방법을 제시했다. 과수화상병은 이 시기 어린 가지에서 자라는 새순의 기공이나 수공, 또는 상처를 통해 병원균이 침입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새순 감염을 방지할 경우 병이 주변 가지로 빠르게 확산되고, 이미 가지에 궤양을 형성해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전염원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예방을 위해 강한 비가 오기 하루 전과 비가 온 직후, 그리고 웃자라는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 전후에 옥시테트라사이

클린 성분이 포함된 약제를 2회 살포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사과나무의 경우 새순 길이가 5~7cm 정도일 때 프록시사디온칼슘 성분 약제를 한 차례 살포하면 어린 가지의 세포벽이 두꺼워져 병이 발생하더라도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해당 약제는 배나무에는 효과가 없어 사용 대상에 유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요오드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방제제로 판매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품은 과수화상병 예방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테크노파크 지원 결실... 한국그린에너지, 차세대 태양광 R&D 수주

### 동서형·영농형 태양광 기술 실증 선정... 지역 강소기업 도약 기대

전북테크노파크의 맞춤형 지원을 받은 한국그린에너지(주)가 정부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차세대 태양광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집중 지원해온 한국그린에너지(주)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국책 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전북테크노파크가 기업의 중장기 성장로드맵에 맞춰 제공한 체계적인 지원이 기반이 됐다. 기술개

발 지원뿐 아니라 기업 맞춤형 자유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과제 기획 역량을 강화해온 점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선정된 과제는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동서형 수직 태양광'과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기술 실증이다. 특히 동서형 수직 태양광은 발전 시간을 분산시켜 전력 부하를 줄이는 기술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그린에너지(주)는 자체 구조물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최근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2025년 매출 235억 원을 기록한 지역 대표 에너지 기업이다. 회사는 이번 과제를 통해 차세대 태양광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

다는 계획이다.

신동찬 대표는 "전북테크노파크의 성장로드맵 기반 지원 덕분에 대형 국책과제를 수주할 수 있었다"며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화를 추진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한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사례는 맞춤형 기업 지원이 국비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대표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전북은행, 최고 연 3.15% '감사한달 특판예금'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한달 특판예금'을 출시하고 오는 29일까지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판예금은 가입 기간 12개월 기준 기본금리 연 2.95%에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3.15%(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과 일반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 기관 고객은 제외된다.

가입 금액은 계좌당 100만 원 이상이며, 1인당 최대 50억 원까지 가능하다. 총 판매 한도는 1,500억 원으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대 연 0.20%가 적용된다.

예금 가입일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전북은행 수시입출금 계좌 평균잔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연 0.10%의 금리가 추가되며, 마케팅 등의 시 연 0.10%의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 농촌진흥청,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필기시험 원서 접수

농촌진흥청은 2026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가축 품종 개량과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선발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필기시험 원서 접수는 온라인 접수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시험은 7월 11일 전주시에서 실시된다.

필기시험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며, 객관식 4지선다형 100문항이 출제된다.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실기시험은 가축 인공수정 실무 능력을 평가하며,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전북경제통상진흥원-티인베스트먼트, 투자 생태계 활성화 '맞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벤처캐피탈과 손잡고 지역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4월 30일 티인베스트먼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북 지역 기업 투자 유치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유망 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추천하고, 투자설명회(IR)와 네트워킹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공동 펀드 조성 등 다양한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티인베스트먼트는 2018년 설립 이후 20개 펀드, 총 4,473억 원 규모를 결성한 벤처캐피탈로, 인공지능(AI)과 로봇, 소재·부품·장비,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TIPS 운영사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4월 30일 티인베스트먼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초기 및 성장 단계 스타트업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 투자 자금을 지역으로 유인시키고, 전북 기업과 투자자들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IR 행사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 간 실질적인 매칭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생생장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북생생장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북지역 소상공인 100개사가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을 받게 되며, 지역 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광역지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전북은 대표 공공쇼핑몰인 전북생생장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진원은 도내 농특산물과 우수 제품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쇼핑몰 내 '로컬상품관'을 운영하고, 최대 30% 할인 프로모션과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여 업체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행축제와 지역 축제와 연계한 현장 판매, 대형 유통사 MD 초청 구매상담회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판로 확대 전략도 추진한다. 대형 플랫폼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단계별 성장 지원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로컬상품관 오픈 기념 온라인 기획전과 할인쿠폰 이벤트를 통해 초기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전국 단위 인지도 제고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윤여봉 원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라며 "전북생생장터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5월 중 판로지원 통합신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